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6. Vol. 19, No. 1, 1-1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긍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김 경 희
연세대학교 아동 · 가족학과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정서의 특징을 규명하여 도덕적 정서를 개념화 했던 이전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본질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반청소년 128명과 비행청소년 130명, 총 258명이었다.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3개의 이야기와 부모의 훈육방식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면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얻어진 자료는 내용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도덕적 정서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또한 신뢰, 존경, 사랑 등의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본질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훈육방식은 정서적 미숙과 가치의 내면화의 발달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었으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본질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도덕적 정서, 비행청소년, 존경, 신뢰, 양심, 부모의 훈육 방식

인지이론가들은 도덕적 정서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사건과 그와 관련되어 생기는 인지적 정서에 근거하는 고등 수준의 정서라고 정의한다(Hoffman, 1998; Walker & Pitts, 1998; 김경희, 2004b).

Haidt(2001)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 도덕적 직관을 구별하는 가운데, 도덕적 정서를 인지적 정서라고 기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판단은 문화나 하위문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워지는 일련의 덕목에 근거한 행위, 또는 '선 대 악'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되며, 도덕적 직관(moral intuition)은 감정적 유인가(affective valence)를 포함한 도덕적 판단을 의식할 때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의 송중일 사무관께 감사드린다.

교신저자 : 김경희, E-mail: mkhkim@yonsei.ac.kr

지금까지 정서가 고등 수준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서는 선천적이고 개인적이며, 양극화되고 편견적인 조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인지를 왜곡시키거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Moshman, 1995). 그러나 최근, 정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특징을 가지며(김경희, 2004a)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부도덕한 행동을 제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의사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Haidt, 2001). 도덕적 정서를 고등 수준의 인지적 정서라고 볼 때, 인지와 정서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지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인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부터 논의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인지과정은 정서의 발생과 분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심리학에서 인지적 평가이론의 창시자인 Arnold(1960)에 의하면, 정서과정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지각되고 평가가 뒤따르며, 그 다음에 어떤 정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Arnold의 이중적 노선을 보완하여 Lazarus (1991, 1999)는 인지가 정서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지적 평가 결과 정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관점은 Zajonc (1980)의 잘 알려진 “호오에는 추론이 필요없다”(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Zajonc에 의하면 정서와 인지는 독립적 체계이며, 정서는 인지적 과정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점을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어의적(semantic)문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Leventhal & Scherer, 1987).

Lazarus는 논쟁 이후 그의 인지적 평가 개념을 학습된 평가에만 국한시켜서 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그는 인지적 성소를 정서를 야기 시키는 사건의 의미로 가정했다.

Hoffman(1983)과 Weiner(1985)는 도덕적 정서를 인간 행위의 가장 강한 동기유발자라고 시사한 것과 유사하게, Eisenberg(2000)와 Smith, Webster, Parrott 및 Eyre(2002)는 도덕적 정서란 도덕적 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정서가 책략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정서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Frank, 1988) 정서에 관한 대뇌피질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김경희, 2004b; Panksepp, 1998).

정서이론가들은 정서를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Averill, 1980b), 기본적, 비기본적 정서로 (Izard, 1991; Draghi-Lorenz, Reddy, &Costall, 2001)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정서와 비기본정서의 원인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공통되어 있다고 한다(Izard, 1991; Wallbott & Scherer, 1995).

긍정적 정서에는 기쁨, 사랑, 흥미, 즐거움, 존경심, 신뢰 등이, 부정적 정서에는 분노, 슬픔, 질투, 죄책감, 수치심 등이 있으며, 기본정서로는 기쁨, 분노, 슬픔, 사랑, 증오, 즐거움 등이, 비기본정서로 존경, 경외, 신뢰, 죄책감 등으로 구분된다(김경희, 2004b). 그러나 Izard(1991)만이 죄책감을 기본 정서에 포함시킨 유일한 학자이다. 기본 대 비기본정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중이다.

정서의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정서의 이상화된 모델, 곧 패러다임을 충동적 정서, 갈등

적 정서, 초월적 정서로 구분하고 있으며(Averill, 1980a), 최근 김경희(2004b)는 인류학, 사회-, 문화-, 진화론적 심리학의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도덕적 정서를 정서의 패러다임에 포함시키고 있다.

충동적 정서는 정서의 본능이론과 유사하다. McDougall(1948)이 본능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의 질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 것을 Averill (1980a)은 이를 본능 대신 충동적 정서로 보았다.

초월적 정서는 인지 구조가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사고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자아를 초월하고, 또 산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 정서라고 명명되었다. 네 가지 정서는 사태에 적응적인 책략이며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한다.

정서패러다임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데, 지금까지 수행된 도덕적 정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부정적 정서인 죄책감, 수치심을 다룬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개념과 정의(Ausubel, 1955; Darwin, 1872/1965; Erikson, 1950; Ferguson & Stegge, 1998; Freud, 1930/1961; Hogan & Cheek, 1983; Lewis, 1984; Roseman, 1984; Tangney, 1990; Weiner, 1985), 죄책감과 수치심간의 차이(Ferguson, Stegge, Miller, & Olsen, 1998; Lewis, 1984; Niedenthal, Tangney & Gavinski, 1994; Tangney, 1998), 발달(Ferguson et al., 1998; 김경희, 1996, 1997, 2002), 측정연구(Kugler & Jones, 1992; Mosher, 1966, 1968, 1979, 1988; Moulton, Berstein, Liberty, & Altucher, 1966; Sears, Maccoby, & Levin, 1957; Tangney, 1990, 1992), 그리고 비행과 정신장애(Lewis, 1984; 류설영, 1999; 심종은 · 이영호, 2000) 등이다.

그러나 도덕의 긍정적 정서인 존경, 신뢰, 사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김경희, 2004b). 일찍이 Kant(1785/1999)는 도덕에 관한 그의 저서인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에서 당위성(Sollen)은 법률, 관습,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치가 내면화되어 부모, 가족 간의 존경, 신뢰, 사랑과 같은 도덕적 정서 또는 감정(moralisches Gefühl, Kant, 1785/1999. p.31)으로 나타난다고 거론했다. 그리고 김경희(2004a)는 그의 탐색연구에서 도덕적 정서 중 사랑, 신뢰, 존경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연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차원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도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훈육 방식(parental control techniques)을 제시하고 있다(Grusec & Goodnow, 1994; Grusec, Goodnow, & Kuczynski, 2000; Hoffman, 1994; Hoffman & Saltzstein; 1967; Kochanska, Aksan, & Nichlos, 2003; McCombs, Forehand, & Smith, 1988; Portes, Dunham, & Williams, 1986; Rohner, Bourque, & Elordi, 1996).

McCombs와 그의 동료들(1988)은 부모 훈육 방식 가운데 귀납방법은 윤리 및 도덕 가치를 내면화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논했다.

한편 Grusec & Goodnow(1994), Grusec 등(2000), Portes 등(1986) 그리고 Kochanska 등(2003)은 신체적 처벌, 위협, 야단치는 등의 강압적-물리적 방법은 도덕 정서와 가치 내면화 등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방해하며, 공격성, 적개심 및 비행에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부모의 강압적-물리적 훈육 방법의 결과, 청년기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거부 형태로 나타나며, 애정철회 방식은 특히 청년 자녀들에게 황폐적 영향을 미쳐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가치감에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까지 도덕적 정서 가운데 존경,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Smith 등(2002)이 정의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정서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청소년과 행위 위반자로서 비행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 · 외 연구 경향과 문제점,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일련의 연구들(1996, 1999, 2000, 2002, 2004a)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정서를 인지적 평가에 따른 감정으로 보는 Lazarus의 노선에 동조하는 본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의 특징 및 차이 여부와,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어머니의 훈육 방식의 정체를 파악하여, 3) 1)과 2)의 결과를 토대로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행청소년에 관해서는 Glueck과 Glueck (1950)의 고전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후 연구들에서도 부정적인 심리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비행”과 “비행청소년” 자체(per se)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반청소년의 비교 집단으로서 일반청소년과의 차이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지향되어 있는 탐색적 성질을 갖는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청소년 128명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하 비행청소년이라 지칭) 130명, 총 258명이다.

연구의 비교대상인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여자 피험자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에 국한시켰다.

일반청소년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K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30명이 표집 되었는데, 질문지에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2명을 제외시키고 128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비행청소년은 서울에 소재한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147명을 표집 했으나, 일반청소년과 같은 조건으로 최종 130명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비행청소년은 초범과 재범이 비슷한 수로 구성되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보호관찰소의 전문가인 사무관의 정보 및 최근 연구(이희정 · 이성철, 2005)에서 초 · 재범 간의 심리적 특성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근거했다. 비행청소년의 비행은 절도와 싸움 등의 경미한 경우였다.

평균 연령은 일반청소년은 16.4세, 비행청소년은 16.6세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면접형 질문지로서 김경희(2004a)가 제작한 것이다. 이 질문지는 도덕적 정서를 탐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시했던 Tangney(1990, 1992)의 연구를 근거로, Kohlberg(1976), Eckenberger와 Kim(1976), Mosher(1979, 1988), 김경희(2002)가 제작했던 질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질문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개의 이야기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어머니의 훈육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도덕적 본질과 긍정적 · 부정적 패러다임을 포함한 도덕적 정서를 탐색해낼 수 있는 상황들, 즉 거짓말과 도둑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이야기들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심층적인 질문을 추가시켰다(결과 참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와 부모의 훈육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1> 실업자인 두 형제가 다른 도시로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형은 상점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동생은 그 도시 유력 인사인 노인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여 수술비조로 돈을 챙겨서 형과 함께 도망친 상황.

<이야기 2>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면, 여름방학 캠핑에 참가를 허락받은 아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캠핑가기 며칠 전 아버지가 친구들과 낚시 여행 간다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우인데, 아들은 캠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청을 거절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이야기 3> 중학생인 딸이 어머니의 약속을 받고 다음 주에 열릴 유명한 팝 콘서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았는데, 어머니가 콘서트에 가는 것보다는 새 교복을 장만하는 데 모은 돈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서, 딸은 실망했지만 모은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엄마 몰래 남은 돈으로 팝콘서트에 간 후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언니에게 사실을 얘기한 상황.

<부모의 훈육 방식> 세 가지 가정된 상황에서 조사대상자 어머니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훈육방식으로, Eckenberger와 Kim(1976), Smith(1988)에 기초한 5가지를 사용했다.

세 가지 상황은 세 가지 상황은 1)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2) 도둑질 했을 때, 3) 거짓말 했을 때 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훈육방식은 1) 강압적-물리적 방법(power-assertion, 때리거나 야단치고, 명령하는 것), 2) 애정 철회(love-withdrawal, 일시적 냉담과 거부), 3) 자기-지향적 귀납(self-oriented induction,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설명해 줌), 4) 타인-지향적 귀납(other-oriented induction,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설명해 줌), 그리고 5) 충고(advice) 이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일반청소년은 2005년 10

월에 교사에 의해서, 비행청소년은 2005년 9월부터 11월에 비행청소년들의 개별 면접 시, 질문지는 면접자인 상담자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수집되었다. 검사소요 시간은 40~60분이었다.

분석 방법

질문지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내용 분석은 본 연구자와 다른 평정자(전공 교수)가 김경희(2002, 2004a)의 분류에 근거하여 범주화 하였다.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토론을 통해서 일치점을 찾아 범주화 했으며, 두 사람간의 일치도는 95% 이상이었다.

내용 분석한 결과는 각 범주에 반응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차이 여부는 카이 검증(χ^2)으로 처리하였다.

결 과

세 가지 이야기에 관련된 질문내용에 반응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빈도, 백분율과 이의 차이 검증한 결과를 다음 표 1, 2, 3, 4에 각각 제시하였다.

이야기 1 : 속이는 것과 도둑질 상황

이야기 1에서는 속이는 것과 도둑질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노인을 속이는 것이 왜 나쁜지, 양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1. 속이는 것과 도둑질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더 나쁜가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1.18, n.s.).

일반청소년(61.7%)과 비행청소년(56.2%) 모두 속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속이는 것보다는 도둑질이 더 나쁜 행위라고 반응했다.

2. 속이는 것이 도둑질보다 더 나쁜 행위로 보는 이유로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행청소년 집단에서 모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이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3. 도둑질이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이유로는 두 집단에서 모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곧 타인의 노력의 대가이며 소유물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았다.

4. 노인을 속이는 것이 나쁜 이유에 대한 반응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었다(χ^2=3.18, n.s.). 두 집단 모두 노인을 속이는 것이 나쁜 이유로 양심 위배와 신뢰 위배, 그리고 약자에 대한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양심이란 무엇인가 곧, 양심의 정의에 대한 반응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χ^2=8.36, p<.05). 즉, 일반청소년은 양심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법이라고 보는 비율(66.4%)이 비행청소년(53.1%)보다 많았으며, 사회적 도덕 기준으로 보는 비율은 비행청소년(23.1%)이 일반청소년(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심을 죄책감으로 동일시하는 비율은 일반청소년(23.4%)과 비

표 1. 이야기 1에 나타난 분석결과

범주 \ 대상	일반청소년(n=128) n %	비행청소년(n=130) n %	χ^2
1 더 나쁜 행위	속이는 것 17(13.3)	23(17.7)	
	도둑질 32(25.0)	34(26.2)	1.182
	둘 다 79(61.7)	73(56.2)	
2 속이는 것이 더 나쁜 이유	[1](n=17)	(n=23)	
	무조건 나쁘다 7(41.2)	13(56.5)	.921
	다른 사람이 번 돈 10(58.8)	10(43.5)	
3 도둑질이 더 나쁜 이유	[2](n=32)	(n=34)	
	무조건 나쁘다 7(21.9)	7(20.6)	.501
	물질적, 정신적인 이중적 피해 25(78.1)	27(79.4)	
4 노인을 속이는 것이 나쁜 점	신뢰 위배 44(34.4)	38(292.)	
	약자에 대한 피해 33(25.8)	26(20.0)	3.177
	양심 위배(죄책감) 51(39.8)	66(50.8)	
5 양심의 정의	사회적 도덕 기준 13(10.2)	30(23.1)	
	인간본성에 내재된 법 85(66.4)	69(53.1)	8.385*
	잘못했을 때의 죄책감 30(23.4)	31(23.8)	
6 양심의 획득 방법	인간 본성 56(43.8)	57(43.8)	
	교육 25(19.5)	25(19.2)	.004
	경험 47(36.7)	48(36.9)	
7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	사회적 규범(윤리) 42(32.8)	34(26.2)	
	교육 18(14.1)	32(24.6)	4.868+
	경험 68(53.1)	64(49.2)	

*p<.05 +p<.10

1), 2)의 n은 각각 1번 문항의 해당 범주에 대한 반응수

행청소년(23.8%)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6. 양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양심 획득 방법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인간 본성이란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7.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차이를 보였다(χ^2=4.89, p<.10). 즉,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로 경험과 사회적 윤리의 비율이 더 많았으며, 비행청소년(24.6%)은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로 교육으로 반응한 비율이 일반청소년(14.1%) 보다 높았다.

이야기 2 : 아들이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무리한 부탁에 직면한 상황

이야기 2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들이 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아들이 거절해야 할지 여부와, 거절해야 한다면 왜 거절해야 하는지, 또 거절하면 안 되는 경우 왜 거절하면 안 되는지, 아들-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속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 2에 이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2. 이야기 2에 나타난 분석 결과

범 주		일반청소년(n=128) n %	비행청소년(n-130) n %	χ^2
1 부탁 거절 여부	거절해야 한다	84(65.6)	67(51.5)	5.27*
	거절하면 안 된다	44(34.4)	63(48.5)	
2 거절해야 하는 이유		[3](n=84)	(n=67)	4.49
	신뢰위배	36(42.9)	21(31.3)	
	자신이 모은 돈	22(26.2)	14(20.9)	
	목표 관철	26(31.0)	32(47.8)	
3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		[4](n=44)	(n=63)	-
	부모님께 무조건 복종	2(4.5)	5(7.9)	
	착한 아들의 도리	13(29.5)	12(19.0)	
	캠핑에 가지 않아도 됨	24(54.5)	41(65.1)	
	나중에 돌려받아도 됨	5(11.4)	5(7.9)	
4 아들-아버지 관계	존경(효)	41(32.0)	47(36.2)	1.55
	신뢰	56(43.8)	47(36.2)	
	사랑	31(24.2)	36(27.7)	
5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신뢰 유지	102(79.7)	99(76.2)	2.63
	사회질서 유지	16(12.5)	13(10.0)	
	죄책감	10(7.8)	18(13.8)	

**p<.01

3), 4)의 n은 각각 1번 문항의 해당 범주에 대한 반응수

1. 아들과의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무리한 부탁에 대한 거절 여부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χ^2=5.23, p<.05).

일반청소년(65.6%)과 비행청소년(51.5%)은 아버지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은 거절하면 안 된다는 비율(48.5%)이 일반청소년(34.3%) 보다 더 높았다.

2.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2=4.49, n.s.). 그러나 일반청소년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신뢰 위배 때문이라는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데 비해서(42.9%), 비행청소년은 자기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47.8%).

3.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로 일반청소년(54.5%)과 비행청소년(65.1%) 모두 캠핑에 꼭 가지 않아도 되니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29.5%)과 비행청소년(19.0%)은 착한 아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를 그 다음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4.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은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신뢰(43.8%), 존경(32.0%), 사랑(24.2%)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행청소년은 존경(36.2%)과 신뢰(36.2%)가 같은

표 3. 이야기 3에 나타난 분석 결과

범 주		일반청소년(n=128) n %	비행청소년(n-130) n %	χ^2
1 사실 여부	말해야 한다	46(35.9)	70(53.8)	8.36**
	말하지 말아야 한다	82(64.1)	60(46.2)	
2 말해야 하는 이유		[5](n=46)	(n=67)	10.70*
	부모님께 무조건 복종	5(10.9)	5(7.1)	
	착한 딸의 역할	15(32.6)	15(21.4)	
	콘서트에 꼭 가지 않아도 됨	11(23.9)	38(54.3)	
	거짓말은 나쁘니까	15(32.6)	12(17.1)	
3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6](n=82)	(n=60)	1.03
	가족간의 화목	16(19.5)	10(16.7)	
	자매간 신뢰	10(12.2)	7(11.7)	
	동생이 스스로 말해야 함	37(45.1)	32(53.3)	
	별로 나쁜 일이 아님	19(23.2)	11(18.3)	
4 딸-어머니 관계	존경(효)	29(22.7)	34(26.2)	4.17
	신뢰	56(43.8)	41(31.5)	
	사랑	43(33.6)	55(42.3)	

*p<.05 **p<.01

5), 6)의 n은 각각 1번 문항의 해당 범주에 대한 반응수

비율로, 그 다음 사랑(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신뢰 유지로 반응한 것은 유의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경우에 사회질서 유지(12.5%), 죄책감(7.8%)의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은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13.8%), 사회질서 유지(10.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 3 :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동생이 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상황.

이야기 3에서는 언니가 동생이 거짓말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여부와, 왜 말해야 하는지, 또는 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딸-어머니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 동생이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언니가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χ^2=8.36, p<.01). 즉, 일반청소년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율이 더 많은데 비해서(64.1%), 비행청소년은 말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53.8%).

2. 어머니에게 말해야 하는 경우, 그 이유에서도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χ^2=10.70, p<.05). 구체적으로 일반청소년은 착한 딸의 역할(32.6%)과 거짓말은 나쁜 것(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은 콘서트에 꼭 가지 않아도 되니까(54.3%), 착한 딸의 역할(21.4%) 순으로 어머니에게 말해야 한다

표 4. 부모 훈육 방식 분석 결과

범 주		일반청소년(n=128) n %	비행청소년(n-130) n %	χ^2
1 약속 불이행	강압적-물리적	37(28.9)	19(14.6)	9.42*
	애정 철회	5(3.9)	9(6.9)	
	자기-지향적 귀납	33(25.8)	47(36.2)	
	타인-지향적 귀납	13(10.2)	13(10.0)	
	충고	40(31.3)	42(32.3)	
2 도둑질	강압적-물리적	61(47.6)	52(40.0)	4.15
	애정 철회	1(.8)	3(2.3)	
	자기-지향적 귀납	33(25.8)	29(22.3)	
	타인-지향적 귀납	13(10.2)	17(13.1)	
	충고	20(15.6)	29(22.3)	
3 거짓말	강압적-물리적	48(37.5)	31(23.8)	6.50+
	애정 철회	4(3.1)	5(3.8)	
	자기-지향적 귀납	26(20.3)	28(21.5)	
	타인-지향적 귀납	15(11.7)	16(12.3)	
	충고	35(27.3)	50(38.5)	

**p<.01 +p<.10

는 비율이 많았다.

3. 거짓말 한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일반청소년(45.1%)과 비행청소년(53.3%)은 동생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거나, 별로 나쁜 일이 아니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4. 딸-어머니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는 점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즉, 딸-어머니 관계에서 일반청소년은 신뢰(43.8%)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은 사랑(42.3%)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다(χ^2=4.17, n.s.).

4. 부모 훈육 방식

1.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부모의 훈육 방식을 알아본 결과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χ^2=9.42, p<.05). 즉,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는 충고(31.3%)를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압적-물리적 방법(28.9%)을 사용하는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는 자기-귀납적 방법(36.2%)을, 그 다음으로 충고(32.4%)를 훈육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부모의 훈육 방식을 알아본 결과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들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청소년 어머니들은 거짓말 했을 때, 강압적-물리적 방법(47.6%)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자기-지향적 귀납(25.8%), 충고(15.6%)의 순으로 사용했다.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는 도둑질을 했을 경우, 강압적-물리적 방법(40.0%)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 자기-지향적 귀납(22.3%), 충고(22.3%)를 같은 비율로 사용했다. 의미는 없으나,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는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보다 강압적-물리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χ^2=4.15, n.s.).

3. 거짓말 했을 경우에 부모의 훈육 방식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어머니 간에 어느 정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χ^2=6.50, p<.10). 즉,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는 강압적-물리적 방법(37.5%)과 충고(27.3%)를 사용한 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는 충고(38.5%)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 강압적-물리적 방법(23.8%)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둑질이나 거짓말 했을 때,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는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보다 엄격한 방법 즉, 강압적-물리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의 특징과 차이여부를 규명하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훈육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속이는 것과 도둑질 중에 더 나쁜 행위를 보는 가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양심의 정의나 옳고 그름의 판단, 아버지 부탁의 거절여부, 동생이 거짓말 했을 경우 사실 여부를 말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등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속이는 것과 도둑질 하는 상황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둘 다 나쁜 행위로 보았는데, 이는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2004a)에서 속이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발달적인 차이로 논의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은 청년보다 더 전통적이고 규범지향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노인을 속이는 것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양심위배, 신뢰위배 때문이라고 간주한 것은, 아동 ·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1996, 2002, 2004a, Izard, 199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확실히 규범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심층 질문했던 양심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일반청소년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법으로, 잘못했을 때의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비행청소년보다 많았다. 이러한 양심정의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2004a)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며, 양심은 선험적(a priori)으로 존재한다는 Kant의 정의(1785/1999, p.30)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심이 어떻게 획득되며, 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인간본성, 곧 획득된다기 보다는 타고난다고 보았으며, 옳고 그름도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심의 획득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라 보고, 또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라고 보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김경희, 2004a)와는 다른 것이다. 즉 일반 및 비행청소년 모두 양심정의, 양심의 획득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타고난 것이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라 여겨지는데, 이는 청소년이 청년에 비해서 미발달된 또는 발달의 미성숙한 현상이라고 논의될 수 있다.

양심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적은 수가 죄책감으로 정의한 것은, 이전 연구자들(Ausubel, 1955; 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rnberg, 1983; Niedenthal et al., 1994; Tangney, 1992; Smith et al., 2002; 김경희, 2004a)의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Hume(1777/1975)이 갈파했듯이 역사적으로 서구의 사고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르다고 느끼는 것은 그르다는 보편적 개념(general notion)이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정서에 반영된 독일 청년의 양심에 대한 정의와는 확실히 다는 것이다(김경희, 2004a).

최근 도덕적 가치는 문화적으로 수용된 표준과 결과 뿐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옳거나 그르게 경험하는 정도에 의존한다고 한 Camacho, Higgins 와 Luger(2003)의 결과는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경험”에 의해서 라고 생각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들과 약속한 아버지가 무리한 부탁을 한 상황에서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거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의미있게 많았다.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귀인 시킨 결과에서도 많은 일반청소년들은 아버지와의 신뢰 위배 때문이라고 판단한 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은 자기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전통적이고 규범적이지만, 비행청소년이 보다 공리적으로 지향되어 있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고 보겠다(김경희, 2004a; 백혜정 · 이순목, 2002, 2003).

심층질문을 했던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존경심, 신뢰,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은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다음이 “존경”의 순으로 생각한 데 비해서, 비행청소년은 존경과 신뢰를 똑같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다.

또 다른 심층질문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신뢰유지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으며,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다.

아버지의 부탁에 대한 거절 여부, 거절귀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및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일관성 있게 “신뢰”에 지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2004a) 결과와 다른 것이다. 청년들은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존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동생이 언니에게 사실을 고백한 상황에서 일반청소년은 동생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동생이 거짓말 한 것은 별로 나쁜 일일 뿐 아니라 자매간 신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비행청소년 보다 더 많았다. 반면에, 비행청소년은 콘서트에 꼭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행청소년의 이러한 판단은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까짓 거, 뭐!” 징후 때문에, 어머니에게 무조건 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타인보다도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여부와 같은 결정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비행청소년은 상황을 지각한 후, “거르는 장치”의 인지과정이 결여된, 곧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반청소년은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다음 사랑과 존경의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고, 비행청소년은 사랑, 신뢰, 존경의 순으로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일반청소년은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뿐 아니라 딸-어머니 관계에서도 일관성 있게 “신뢰”를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비행청소년은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가 존경, 신뢰인 것에 비해서 딸-어머니 관계에서는 사랑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 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2004a)의 결과와 같다. 이러한 일반청소년의 신뢰와 비행청소년의 사랑 중시현상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일 수 있거나, 또는 “신뢰와 사랑에 대한 갈망”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도덕적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부모의 훈육방식에서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들은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들보다 약속 불이행 상황과 도둑질하거나 거짓말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강압적-물리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다. 비행청소년 어머니들은 자기-귀납적 방법과 충고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2004a)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생의 어머니들은 의미있게 대학생 자녀에게 귀납적 방법과 충고를 사용했다. 예상과는 달리,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들의 훈육방식에 대한 평정은 실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비행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이상적 훈육방식을 나타낸 것인지도 모른다. 이는 미래연구 과제를 시사 하는 것이다. 특히 비행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강압적-물리적 방법이 도덕적 정서와 비행에 관계된다는 연구(Grusec & Goodnow, 1994; Grusec et al., 2000; Hoffman, 1994; Hoffman & Saltzstein; 1967; Kochanska et al., 2003; MaCombs et al., 1988; Portes et al., 1986; Rohner et al., 1996) 결과와 다른 것이다. 특히, 귀납방법이 윤리 및 도덕가치를 내면화 한다는 MaCombs와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와, 강압적-물리적 방법은 도덕 정서와 가치 내면화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Grusec & Goodnow(1994), 그리고 Kochanska 등(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했을 때, 일반청소년의 어머니들이 비행청소년의 어머니들보다 엄격한 방법 즉, 강압적-물리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 본 연구 결과는 이전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물리적 방법이 비행보다는 사회적 바람직성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행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강압적-물리적 훈육방법은 도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업성취나 학업성적

과 더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김경희, 2004 미발표논문)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집단(A대학교)과 우수한 집단(B대학교)의 어머니들의 훈육방식을 비교한 결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집단의 어머니들은 50% 정도가 강압적-물리적 방법을 쓴 데 비해서 우수집단의 어머니들은 자기-귀납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다(60% 이상).

따라서 본 연구 결과만으로 도덕적 정서와 부모의 훈육방식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추후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 도덕 정서와 가치내면화에 대한 변인들을 밝히는 것도 미래연구 과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속불이행, 거짓말 대 도둑질,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의 관계 상황에서 나타난 도덕적 정서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청소년은 신뢰를, 비행청소년도 존경과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본 것은 도덕적 정서가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신뢰, 존경, 사랑과 같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측면, 곧 도덕적 정서의 긍정적 본질에 지향되어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긍정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정서를 개념화한 이전 연구(김경희, 2004a)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부모의 훈육방식 중 강압적-물리적 방법은 가치내면화 발달에 방해가 될지 모르나, 오히려 비행예방에 효과적이라 추론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청년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강압적-물리적 훈육방식이 긍정적인 도덕적 정서 발달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참 고 문 헌

김경희 (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4.

김경희 (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4-24.

김경희 (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81-93.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김경희 (2004a).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도덕적 정서에 관한 개념화 연구: 긍정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정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17.

김경희 (2004b). 정서심리학. 박영사.

류설영 (1998).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혜정, 이순묵 (2003).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 및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35-153.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이희정, 이성철(2005). 보호관찰 초범과 재범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51-67.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Ausubel, D. B. (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7*, 378-390.

Averill, J. R. (1980a). A constructivist view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Averill, J. R. (1980b). On the paucity of positive emotions. In K. Blankstein, P. Pliner, & J. Polivy(Eds.), *Advances in the study of communication and affect* : Assessment and modification of emotional behavior(Vol. 6). New York: Plenum.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 (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ratory fit :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84(3)*, 498-510.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rnberg, C.(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Vol. 2). (4th. ed.). New York: Wiley.

Darwin, C. (1872/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raghi-Lorenz, R., Reddy, V., & Costall, A. (2001). Rethinking the development of "nonbasic" emotions: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theories. *Development Review, 21*, 263-304.

Eckensberger, L. H., & Kim, K. H. (1976). Moralisches Urteil bei deutschen- und koreanischen Krankenschwestern. *Psychologische Rundschau*, 77.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Ferguson, T. J., & Stegge, H. (1998). Measuring guilt in children: A rose by any other name still has thorns.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 19-74. San Diego: Academic Press.

Frank, R. H. (1988). Passions within reason: The strategic role of the emotions. New York: Norton.

Freud, S. (1930/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In J. Strachey(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Hogarth Press.

Glueck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Grusec, J. E., & Goodnow, J. J.(1994). The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f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Grusec, J. E., Goodnow, J. J., & Kuczynski, L. (2000). New direction in analyses of parenting contributions to children's acquisition of values. *Child Development, 71*, 205-211.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al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fman, M. L. (1994). Discipline and intern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6-28.

Hoffman, M. L., (1998) Varieties of empathy based guilt.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Vol. 4), 91-112. New York: Academic Press.

Hogan, R., & Cheek, J.(1983). Self-concepts, self-presentations, and moral judgement.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elf*(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Hume, D. (1777/1975).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Izard, C.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Plenum.

Kant, I. (1785/1999).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Kochanska, G., Aksan, N., & Nichols, K. E. (2003). Maternal power assertion in discipline and moral discourse contexts : Commonalities,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moral conduct and cogn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6),* 949-963.

Kohlberg, L. (199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n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Eds.),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pp 31-35)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Kugler, K., & Jones, W. H. (1992). On conceptual izing and assessing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18-327.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azarus, R. S. (1999). The cognition-emotion debate : A bit of history. In K. Scherer, A. Schorr & T. Johnstone(Eds.),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venthal, H., & Scherer, K. R.(1987). The relationship of emotion to cognition: Afunctional approach to a semantic controversy. *Cognition and Emotion, 1,* 3-28.

Lewis, H. B. (1984). *Freud and modern psychology.*: The emotional basis of mental Illness(Vol. 2). New York: Plenum.

McCombs, A., Forehand, A., & Smith, K.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roblem-Solving Style and Adolescent Social Adjustment .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57-66.

McDougall, W. (1948). *An outline of psychology.* London: Methuen.

Mosher, D. L. (1966). The development and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analysis of three measures of three aspects of guil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5-29.

Mosher, D. L. (1968). Measurement of guilt in females by self-report invento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690- 695.

Mosher, D. L. (197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guilt. In C. 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

Mosher, D. L. (1988). Revised Mosher Guilt Inventory. In C. M. Davis & W. L. Yarbers.(Eds.), *Sexuality -related measures* : A compendium Lake Mills, LA: Graphic Publications.

Moshman, D. (1995). The construction of moral rationality. *Human Development. 38,* 265-281.

Moulton, R. W., Bernstein, E., Liberty, P. G., & Altucher, N. (1966). Patterning of parental affection and disciplinary dominances as a determinant of guilt and sex 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356-363.

Niedenthal, P. M., Tangney, J. P., & Gavi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I hadn't" :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84-595.

Panksepp, J.(1998). *Affective Neuroscience.* The foundation of human and animal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ortes, P. R., Dunham, R. M., & Williams, S. (1986).

Assessing Child Rearing Style in Ecological Settings: Its Relation to Culture, Social Class, Early Age Intervention, and Scholastic Achievement. *Adolescence, 21*, 723-735.

Rohner, R. P., Bourque, S. L., & Elordi, C. A. (1996). Children's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Caretaker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Poor, Biracial Southern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842-852.

Roseman, I. J. (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motions, relationship, and health. Beberly Hills, CA: Sage.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Harper & Row.

Smith, R. H., Webster, J. M., Parrott, W. G., & Eyre, H. L. (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Smith, T. E. (1988). Parental Control Techniques. *Journal of Family Issues, 2,* 155-176.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99-206.

Tangney, J. P. (1998). How dose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San Diego: Academic Press.

Wallbott, H. G., & Scherer, K. R. (1995). Cultural determinants in experiencing shame and guilt. In J. P. Tagney & K. W. Fisher(Eds.), *Self-conscious emotions* :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2nd ed.). (1982). New York: Simom & Schuster.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Walker, L. J., Pitts, R. 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03- 419.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s, 35,* 151-175.

1차 원고 접수 : 2006. 1. 13
수정 원고 접수 : 2006. 2. 14
최종게재결정 : 2006. 2. 2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6. Vol. 19, No. 1, 1-19

Moral Emotion in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Toward the Consideration of Positive Moral Emotion

Maria Ky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moral emo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its positive implication. An open-ended questionnaire with three stories and parental control techniques was administered to 130 juvenile delinquents and 128 non-delinquents.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chi-squares were appli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juveniles were partly identified. Results also raised questions regarding the issues which power-assertive discipline and induction among parental control techniques would be associated with not only juvenile's internalizing moral emotion, values, but also with delinquency. It was confirmed that moral emotion would be an emotional paradigm with positiv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trust, respect and love. Implications and issues of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moral emotion, juvenile delinquent, trust, respect, conscience, parental control techniques